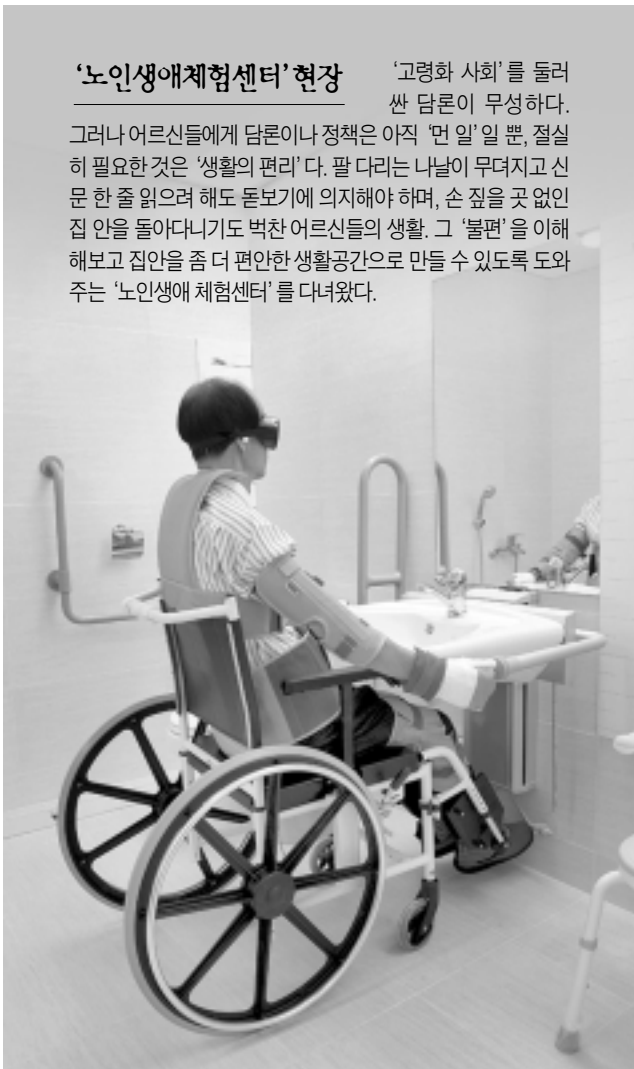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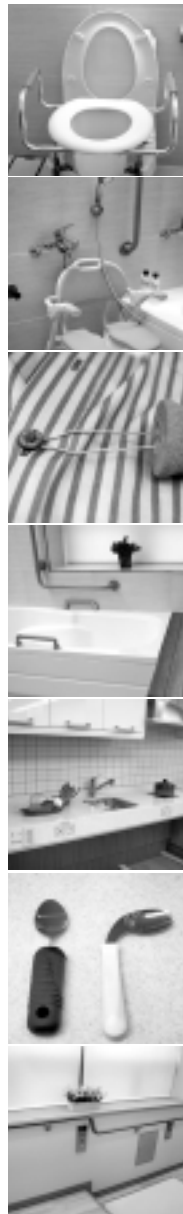


“어르신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노인생애체험센터’ 현장 ‘고령화 사회’를 둘러싼 담론이 무성하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담론이나 정책은 아직 먼 일일 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생활의 편리’다. 팔 다리는 나날이 무더지고 신문 한 줄 읽으려 해도 돋보기에 의지해야 하며, 손 짚을 곳 없인 집 안을 돌아다니기도 벅찬 어르신들의 생활. 그 ‘불편’을 이해해보고 집안을 좀 더 편안한 생활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인생애 체험센터’를 다녀왔다.

역제대와 모래주머니, 특수인경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세면대를 사용해 보는 체험자. 사진 오른쪽 위부터 손잡이가 설치된 좌변기, 샤워용 의자, 단추 채우는 도구, 보조 탁자가 설치된 욕조, 높이 조절이 되는 싱크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손가락, 집안을 걸을 때 짚을 수 있는 손잡이.



“아앗!” “너무 무거워.” “힘들어서 못 갔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2월 27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노인생애 체험센터를 찾은 부천대 건축학과 학생 14명이 특수 장비를 착용한 채 가정집과 유사하게 만든 체험관에서 이리저리 부딪친다. 자리에 앉는 것도 걸어가는데도 마냥 힘들게만 보인다.
이들이 착용한 장비는 팔·다리·등을 둔하게 만드는 역제대와 모래주머니, 손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장갑과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귀마개, 시야를 좁게 만드는 안경 등이다. 장비를 착용하고 나면 몸

가장 ‘난코스’로 꼽히는 것은 바로 단추 채우기. 좁은 시야와 둔감한 손가락 움직임 때문에 보통 때와 달리 중간에서부터 단추를 채우게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40여 분간의 체험이 끝나고 옮겨간 곳은 침실과 욕실 등이 있는 ‘개인 생활 체험 공간’이다. 흔히 ‘어르신들은 온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체험자들도 직접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된다. 동그란 문손잡이는 손 안에서 자꾸 헛바퀴를 돌고, 앉은 자리에서는 불을 켜고 끄는 스위치에 팔을 뻗어도 닿지 않아 불편하다.

모래주머니 달린 특수장비에 팔다리 천근만근 귀마개에 안경까지, 80대 어르신들 신체 상태체험 휠체어 타고 계단 올라 세상과 접할때는 ‘공포’

은 구부정해지고 팔다리는 천근만근. 계다가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말소리로 희미하게 들린다. 일반인에게는 ‘비정상적인 상태’지만, 80대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장비라고 한다.
안내에 따라 처음 도착한 곳은 현관과 주방, 거실 등을 재현해 놓은 ‘공공 생활 체험공간’. 뻘뻘해진 무릎 관절 때문에 현관에서 신발을 꺼내 신는 일부터 ‘노동’으로 느껴진다. 모래주머니와 역제대를 찬 팔로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 떨어뜨리기 일쑤고, 식탁 의자에 앉는 것도 한참 주저하게 된다. 심지어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손가락과 젓가락도 잘 잡히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신발을 신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관에 의자를 하나 놓아주세요. 그리고 의자도 팔걸이가 있는 것이 좋고 일어설 때 지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손가락도 손잡이 부분이 납작한 것보다는 굽은 것이 사용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주방 싱크대와 서랍장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구나 어르신들을 위한 수저,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컵, 식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흡착 그릇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사용하는 가정은 드물다.

마지막으로 ‘보행 체험 공간’에 도착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휠체어를 타고 경사면을 올라보다 보면 바깥세상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가 된다. 1시간에 걸친 체험이 끝나고 특수 장비를 풀고 나자 입에서는 절로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온다. 갑작스런 신체 변화에 당혹스럽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었다는 반응이다.
김영희(20)양은 “있었다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더라”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설계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장명화(21)양은 “가까이 사시는 할머니네를 알든 찾아가 문 손잡이를 바꿔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과 함께 체험에 참가한 소준영(40)교수(부천대 실내건축과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어르신들을 위한 건축설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복지시설 디자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매 학기 센터를 찾아 체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10월 개관한 노인생애체험센터는 현재까지 1500여 명이 체험에 참가했으며, 전화나 인터넷(www.aging-simulation.or.kr)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 (02712-640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7. 영국의 차 무역

영국이 차의 제국이 된 배경은 동인도 회사가 영국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동인도 무역의 독점권을 부여 받고 아시아 무역에 집중하면서 부터다. 초기에 수입된 물품은 주로 후추와 인도의 육양목을 비롯한 섬유제품이었다. 하지만 영국 내 직물 생산업자들의 반대로 인해 희소성이 높은 차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게 됐다.
차가 무역의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영국은 차에 대한 특별한 경제 정책을 펼친다. 회사 소속의 선박들은 선박마다 공간을 할당 받아 개인적인 차 거래를 했다. 선장들은 가급적 많은 양의 차를 자기 배에

동인도회사, 템즈강 항구에 경매장 설립 왕실서 마시며 귀족 부인들 사고 필수품 돼

신기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 이것은 1톤 분량의 차에서 얻은 이익이 몇 년간의 월급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선장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차 무역으로 차의 공급량은 증가되지만 품질은 저하되기도 했다. 차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불순물을 첨가하기도 했다. 이런 혼란 행위에 많은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했으며, 공식적인 무역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차 거래를 금지한다.
한편 동인도 회사는 런던의 템즈강 항구에 차 시장을 열어 차만을 위한 전문 경매장을 설립한다. 대형 상선이 도착할 때마다 경매가 열리게 되지만 자주 열리지는 못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리게 되었으며 차의 수입량이 많아지면서부터는 거의 매주 열리게 되었다.
품질이 낮은 차는 가격이 저렴하여 주로 일반 사람들이 구입했으나 여전히 일반인이 마시기에 차는 비싼 음료였다. 17세기 말 차의 가격은 커피에 비하여 5배 정도 고가로 팔렸다. 18세기에 중국에 무역 거래소



캐서린 왕비

잔에 담긴 차를 마시는 왕비의 모습이 다른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차는 값비싼 ‘귀족 부인의 음료’가 되었다.
당시 커피와 차를 함께 판매하는 커피 하우스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기가 어려웠다. 값비싼 차를 하인들에게 사오게 하기 싫었던 여성들의 심리를 알아차린 토마스는 커피 하우스 옆에 따로 차 가게를 열었다. 가정에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마실 수 있는 마른 차잎 뿐만 아니라 잔에 음료로도 팔았다. 귀부인들은 비싼 값의 차를 구입하고 매혹적인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가게에 줄을 섰다.
이처럼 차는 가정에서 마시는 품격 있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고 차를 준비하는 방법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차와 다기 세트는 귀족 부인들의 사교에 필수품이 되었다. 차와 함께 곁들이는 음식들이 중요한 화제가 되기도 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 ### ■ 어르신 있는 가정에선 이렇게 하세요
- ▶ 현관에 의자와 구두주걱을 놓아두면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다.
 - ▶ 물통은 작은 용량의 용기에 담아냉장고 중앙 부분에 둔다. 어르신들이 자주 먹는 음식도 손이 닿기 쉬운 부분에 둔다.
 - ▶ 수저는 손잡이가 굽어 손에 쥐기 쉬운 것으로 준비한다. 부분 마비나 손 사용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 수저도 판매하고 있다.
 - ▶ 의자는 팔걸이가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다.
 - ▶ 세탁기는 세탁물을 꺼내기 쉬운 위치로 받침대를 설치한다.
 - ▶ 좌식 생활을 한다면 스위치를 바닥에서 80~9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 침대는 바닥에서 50cm 정도 높은 것이 적당하다.
 - ▶ 방문이나 가구의 손잡이는 원형보다는 바(bar)형으로 바꾼다.
 - ▶ 욕실에도 팔걸이가 있는 샤워용 의자를 둔다.
 - ▶ 욕조를 사용하는 집은 욕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나 보조 탁자를 둔다.

제적공고

성 명 : 정종철
법 명 : 서봉(西峰)
주민등록번호 : 560929-1822436

상기인은 본 종단의 종도로써의 중헌중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승려로써의 자질이 부도덕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적합니다.

불기 2551(2007)년 2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감찰원장 상 산

인감갱신공고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478번지
사찰명 :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흥국사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흥국사 직인
흥국사주지인

상기 인감을 2007년 2월 12일부로 변경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1(2007)년 2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흥국사
주지 월 봉(손태영)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 선포 및 법요식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로 하여 임제종(臨濟宗)의 개조(開祖)이신 임계 의현(義玄)선사(禪師)를 종조(宗祖)로 하고 선교를 수지 신앙합니다. 우리나라 선종은 대개 임제종풍이었으나 태고 니용선사 이후 부터는 확실히 임제종의 선풍을 이어 받았고, 이를 더욱 선양하고자 종단운영에 필요한 중헌, 중법을 마련하고 중생교화의 지침이 될 터전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할 것입니다. 삼가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을 선포하는 바이니, 함께 할 종도대중은 따르시기 바랍니다.

창종 법요식

- ◆ 일시 : 불기 2551(2007)년 양력 3월 18일(음,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 ◆ 장소 : 흥본산 송원사 (경남 김해시 외동 699-5)
- ◆ 전화 : 055)338-4008 / 011-868-2850

종도 사암모집

세계불교임제종 창종과 더불어, 함께 할 종도여러분을모십니다. 수행과 전법의 터전이 될 본종단의 일원으로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법광 석혜공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문의전화 055)338-4008 / 011-868-2850